

2018년도 총여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제31대 총여학생회 무빙의 회장 원정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임기를 마치면서 올리고 싶었던 말을 미리 써서 올립니다. 언젠가 2018년도 총여학생회 활동을 돌아보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 총여학생회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고,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전혀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올해 무빙의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보다는 총여학생회를 지지해주신 여러분, 매순간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는 소수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출마를 결심했던 건 총여학생회가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재작년 신입생이었던 저는 캠퍼스, 강의실, 학과라는 공간 속에서 나 혼자만이 평등과 차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나를 위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안전하고, 혼자 아니고, 날 받아주는 곳은 총여학생회실 뿐이었습니다. 17년도 총여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처음 받을 들이게 된 이곳은 저뿐만 아닌 모든 이가 차별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공존했지만 나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질병, 장애, 주량, 식성 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다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를 비롯한 누군가는 또 갈 곳을 잃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급하게 선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올해 총여학생회를 누군가에게 있을 곳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저의 절박함이 오히려 괴리감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상대하고 대변하는 총여학생회원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선거는 그대로 31대 총여학생회를 꾸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꾸준히 같이 일할 사람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고, 나날이 새롭게 생기는 학내 문제들과 미리 준비했던 공약 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학기에 고정적으로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저와 부회장을 포함해서 고작 세 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를 분배하는 일에 서툰 저는 과업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 한 명의 몫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이 진척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이 지연되고, 성과를 내기 어려웠으며, 그러면서도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엄청난 소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시로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모집했지만 들어오는 신청은 없는 채로, 단지 들려오는 건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은데 총여학생회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 했다더라’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응,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답했습니다. 저부터가 출마를 결심할 때 정당한 비판은 물론 부당한 비난까지 각오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4명에서 모든 활동을 이어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투 운동 같습니다. 미투라는 거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많은 피해자들이 공론화해커닝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온 정신과 힘을 쏟아 붓고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의 그 피로감이 저를 1학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고소를 당하더라도 학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고 더 크게 떠들걸. 인권센터 센터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답을 마친 학교에 진상조사와 적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요구해 볼걸. 더 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동국대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용기를 드렸으면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화되지 않은 성폭력이 동국대 곳곳에 묻혀있다는 걸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대응,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 인권센터 규정과 운영의 문제, 새터와 축제 자치규약, 공약사업, 모든 행사, 회의, 언론대응, 학생회로서 개입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든 어느 소수자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했고, 급기야 페이스북 동국총여 페이지 사용마저 소홀해질 정도로 소통에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보 부족, 오해, 불신 등이 쌓이는 지름길이었으나 다시 돌아가도 소통 사업을 하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통 사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밀려 있는 일을 더 미룰 수도 없었고, 어떤 소수자를 '나중'으로 만들어서는 총여학생회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제31대 총여학생회 무빙은 준비가 안 된 것이 많은 학생회였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서 드디어 6명이 모였고 지난 시간에 못한 만큼 남은 시간을 불태우자고 생각했습니다. 총투표가 처음 발의된 것은 반드시 남기고 가고 싶었던 사업을 계획해둔 그때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느라 또 약속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보여주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빙의 부족했던 점이 총여학생회라는 기구 자체를 몰아넣은 것 같아, 총여학생회의 의의에 공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 드립니다. 비록 이번 총여학생회 무빙이 당신의 삶 속에 자리하지 못했더라도, 일상 속 성차별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총여학생회라는 기구에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여학생회는 학내와 사회의 가부장제를 몰아내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구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차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맥이 잠시 끊겼다가 돌아온 30, 31대 총여학생회에서는 누군가의 차별받은 경험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다, 기층까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여학생회체계가 부재한 지금은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일하는 와중에도 총여학생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차별 구조 속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시선을 견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총여학생회가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시선에서 더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회였음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총여학생회는 중앙 기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만을 겪어 왔습니다. 총여학생회의 존재 의의와 이유에 공감하지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총여학생회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폐지가 아닌 기회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고 총여학생회가 그 기능을 더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지지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의 상황을 알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여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보여드린 밀린 사업을 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부착해둔 대자보나 포스터를 찢거나 눈앞에서 유인물을 구겨버리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족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응원을 받으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학생총회를 통해 총여학생회원 스스로 우리의 자주성을 선언하고, 총여학생회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회칙 개정 TF팀을 발족하는 것입니다. 부디 총회에서 의결 내용이 계속해서 효력을 갖도록 총투표 참여, 여학생총회 참석으로 지지를 표명해주십시오. 누구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 없는 동국대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0.

동국대학교 제31대 총여학생회 무빙, 회장 원정